



오록도 행복 칼럼

김규영

아름다운 남구21추진협의회 부회장
전 예문여고 교감

개뿔벌레와 도깨비불의 비밀

반딧불이는 예부터 인간의 감성에 가장 그리운 정서곤충이며, 환경지표이다.

저마다 고향의 밤을 지켜주던 희망의 빛이었다. 초여름 저녁을 일찍 먹고 셋별을 따라 마을 골목을 내달리며 친구처럼 따라가던 오묘한 별빛이었다.

호박꽃 안에 담아보고, 새하얀 박꽃 속에도 가두어두 봤었다. 어쩌서 초록색 신비한 빛이 나는 벌레가 있던 말인가. 중국 차운고사의 '형설지공(螢雪之功)'이 정말일까. '개뿔벌레야, 개뿔 먹고 자란 더러운 놈이야.' 마을 어른들은 도로가의 명석에 둘러 앉아 아이들에게 그렇게 들려대었다. 실제로 시골엔 집집마다 한 마리씩은 지렁이 개를 키웠다. 그 개뿔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이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우화이다. 개뿔만큼이나 온 시골에 흔하게 반딧불이가 있었기에 개뿔벌레라고 다른 이름이 붙어 온 것이 아닐까. 또한 '도깨비불' 이야, 저 고개 넘어 가는 길에 도깨비들이 살아

~" 정정한 옛 시골의 너무나 맑고 깨끗한 밤하늘의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 만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알맞은 숲과 그늘 등이 우리의 어린시절엔 수많은 반디들이 생태를 자연스레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의 발달과 국토의 개발, 도시의 건설등으로 모든 반딧불이들이 오염에 노출되어 버렸다. 이 무지막지한 환경오염으로 우리는 반디들의 고향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다. 우리 스스로 숨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이기대 반딧불이 기적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라진 이 반디들이 부활한 것이다. 세계엔 2000종이나 있다지만 우리나라엔 8종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 이기대엔 파과리반디와 늦반디가 초여름, 초가을에 각각 출현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332호 1982. 2002)로 지정받아 보호되고 있는 무주군 설천면 일대와 제주, 성남, 영동, 울진 등 수십 곳에서 반딧불이 보호 축제를 하고 있다.

부산 인근도 영도, 장안사 등에서 행해지고 있

다. 그런데 우리의 대규모 이기대 반딧불이 서식지는 해안선 방어와 통제의 군사보안지역 영향 덕분에이다. 50년 가까이 민간인 출입금지로 이기대 일원의 원시적 수목과 환경이 생태오염 없이 잘 보존된 것이다. 반디의 먹이와 숙주가 된 민달팽이들이 잘 성장되어 군집을 이루어 먹이사슬이 되었다. 반딧불이는 환경지표의 상징이기에 온도, 빛, 습도 등에 가장 민감하다. 종합적으로 1급 이상의 환경이 지속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우리 남구가 1급 청정지역임을 보증받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아름다운 남구21추진협의회와 남구청이 주관한 제16회 반딧불이 공식 체험행사를 마쳤다. 처음 옹호4동 예문여고 제자 학생들을 데리고 보호운동을 펼친 지 20여년 흘렀다. 해마다 기상에 의해 반디의 생태계와 출현이 증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도시공원으로 개발, 발전 뒤에도 꾸준히 반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다. 그간 야생 화원들의 열정과 남구청의 노력, 시민, 관광객이 잘 가꿔주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기대 반딧불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길 소원해 본다.

평화공원이 '반디 세상'이 되길

올해 행사는 특히 감동적이고 상황이었다. 부산 외 지역에서도 야간관찰 체험에 수많은 가족이 참가했다. 예비탐사(5월 25~6월 7일) 때도 3차례 이상은 장자산 정상 숲길과 발골새 해안 계단길에서 수백, 수천의 반디들이 목격되었다. 근년에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유료화된 다른 관광지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전국서 모으는 사진작가들도 탄성으로 매일 작품을 찍고 있었다.

남구와 이기대의 브랜드를 높혀 줄 최고의 가치로 평가된다. 남구가 반딧불이 생태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도심지에, 바닷가에, 접근성과 절경이 뛰어나다. 피천스톤이 전국 최고 수치의 맑고 깨끗한 곳이다. 이기대의 도시 생태공원화를 위하여 하루 속히 반딧불이 생태 체험관과 반딧불이 형상물을 장자산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오록도와 해파랑길의 관광루트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서식지 확대가 장자산 전체와 신선대-봉우리산-황령산 등으로 많이 번식되어 가고 있다. 몇년 안



에 평화공원과 수목원에서도 별처럼 아름다운 이기대의 반딧불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눈부실 날을 기대해 본다.

무분별한 입산으로 약초, 산나물, 열매들의 채취를 막고 거미줄을 제거하여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 야간 자동차, 오토바이 굉음, 수많은 차량 동행의 매연, 산악 자전거의 빛의 홍포를 막아야 한다. 반딧불이 오솔길을 지정해 안내표지를 달아 보호해야 한다. 반디는 물론 수목, 야생화, 개구리, 개재, 도롱뇽 등 양서류의 서식이 골짜기 계곡마다 잘 보존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당장 시급하다. 후손을 위해 이기대 8경을 지정해 반디공원을 우리가 필연코 지켜주어야 한다.

전설도 문화 자산이다

팍태옥의 바람고개 이야기

문헌통에 온 진시황제 원정대

기원전 3세기경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이른바 '제왕축신(帝王御神)'이 되고자 불로불사를 추구하였다. 신비한 영약을 먹으면서 부지런히 술법을 연마하면 신선이 된다는 믿음은 사람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화등신(羽化登仙)이 중국의 목표였던 모양이다. 때문에 깃털보다 가벼운 몸을 만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 믿음은 후대로 내려와 4세기경 장자에 이르러 '소요자재(逍遙自在)', 즉 시공간이든 사물이든 일체의 걸림이나 구속을 거부하고 경계를 넘나들기 자유로운 경지의 이상향이 등장한다. 무로도원이 그곳이다. 이로 보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고대로부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의 영생불사에 부응한 이는 신선의 술법을 행하는 방사(方士) 신분의 서복(徐福)이었다. 그는 동쪽 바다 건너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에 가서 영약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동남동녀(童男童女) 3000명과 선박 수리 등의 관련 종사자 2000명을 포함 총 5,000명으로 이루어진 500척의 대선단을 꾸려 한반도로 건너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각각의 숫자가 정확한지는 의문이다. 서복이 탐방한 삼신산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었다고 한다. 과연 서복이 불로불사약을 구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 규슈지방 사가현에 정착해서 115세까지 장수했다는 전설이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한반도로 건너온 서복은 '서시파차(徐述此)' 또는 '서복파차(徐述之)' 등의 글자를 바위에 새겨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정방폭포, 남해 금산, 거제도 해금강 등이다. 이와 같은 서복의 전설은 12세기인 오월에 이르러 불로초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항노화 산업에 적용한다는 것만 광 자원화를 위한 불로초공원 조성 등이 그것이다.

우리 남구에도 서복이 배정고등학교 뒤편 강선대(降仙臺)를 다녀간 전설이 내려온다. 그래서 '서시파차' 기념비를 세워두었는데 1945년



서복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거북바위에 새겨진 석각.

해방 정국의 혼란기에 없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비석이 있었다면 문헌면 4동 장고갯길 현 주민복합센터 부근 좁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1970년대 초 지금의 지계골 복지관 앞 대로변 인도에 A4용지 두 장 크기로 서시파차라는 글자가 새겨진 석각이 묻혀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분의 증언이 있었다. 왜 그 곳에 서복의 발자취를 옮겨 놓았는지 알 길이 없으나 석각은 도로 확장공사 때 사라졌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4월 어느날, 서복 기념 사당이 배정고등학교 터에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지체 없이 그 글을 쓴 분을 만나서 근거가 어디 있는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저술한 책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낙담부터 해야겠다.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으며, 사당이었다는 흔적의 티끌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생각하면 서시파차와 강선대에 대한 전설이 그렇게라도 알려질 수 있었으니 일말의 흥분은 한 켠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2014년 남구 향토사 발굴·채집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비석에 대한 풍문조차 들지 못했다. 혹물머 서복을 기념한 사당이 웬 말인가. 이 어이없는 왜곡은 바꾸어야 할 속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문제인 듯하다. 환언하면 불로불사와 무병장수의 욕망이 신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시파차와 강선대의 전설이다.

구전이지만 엄연히 역사의 한 조각이요 문화 자산이다.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소박한 힐링거리는 될 성싶다.

소설가·향토사연구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

평생학습도시 남구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강연 중에는 눈여겨 볼 강연을 엄선해 지면으로 소개하는 '알쓸신강(알고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강연)'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6월 19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의 인문학 같은 물리학 강의 '떨림과 울림-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와 세계 그리고 인간'입니다.

우주는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남구도서관 주관 '떨림과 울림' 김상욱 작가 초청 강연회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은하계는 2007년 기준으로 1000억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조개 정도 있다. 그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10년 100년 1000년 거리에 있다. 1억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에 태양이 있는 것은 우연하고 특별한 경우이고 태양이 안 보이는 어둠으로 차 있는 게 우주의 보편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이다. 칸트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는 실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믿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점에서 시간도 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주의 알고리즘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사람이 뉴턴이다. 뉴턴은 어떠한 실험적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하게 모른다고 했으며 그 영향으로 지금도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만물은 다 원자로 되어있다. 원자를 레고블럭이라고 보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특성이 되고 별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바다, 사람 다 수소



로 되어있다. 이 모든게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물리학과 화학이 알아낸 위대한 사실이다. 원자들은 아무 의도와 목적이 없다.

의미란 무엇인가

'사피엔스'라는 책에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의, 행복, 사랑, 인생 이런 것들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크게 두가지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팩트를 다루는 자연과학, 이것이 인간의 가치가 될 여간다란 문제가 생긴다. 아무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

또 하나의 체계는 인간이 수백명을 뛰어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상상의 산물의 체계인 인문학이다. 이 두 체계를 다 조화롭게 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할 자연이 있고 인간의 시각으로만 봐야 할 것이 있다. 백년 전만해도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

고 집에서만 일하는 것을 자연법칙이라고 했다. 이걸 틀린 것이 다. 인간끼리 만든 합의일 뿐이다. 여기에 자연과학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인문학에는 법칙이 없다. 새로운 합의를 하러 가는 것이다. 합의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가 높은 사회는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해결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합의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광우병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까지가 과학이다. 그 수치를 믿을지 말지 그 사회가 합의를 한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의미 없는 우주를 행복하게 산다.

아무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누린다. 실제로 우주는 아무 의미 없이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주에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순적이지만 이런 존재가 인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거고 이런 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자지만 우주보다 인간이 더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미자(남구 공보팀장)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타리가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7.)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7.14.(일)	통영 연대도.만지도	010-5464-7845
	약천산악회	7.17.(수)	영동 물한계곡	010-4655-4370
	백호산악회	7.10.(수)	뽕사골백무동	010-5621-4007
	남구자유산악회	7. 7. (일)	산청 래프팅	010-5576-8142
	대술산악회	7.14.(일)	전북 부안 내소사	010-2559-2641
	하나로산악회	7. 3.(수)	지리산 칠불사	010-3837-6206
용호동	대술산악회	7. 7. (일)	거창 수송대 계곡산행	010-8565-8359
	여남산악회	7.14.(일)	산청 방곡계곡	010-3855-6569
	용신산악회	7.14.(일)	충주 종령이길	010-4657-7051
	청산산악회	7. 7. (일)	제천 망덕봉 능강계곡	010-8008-2087
	해월산악회	7.21.(일)	전북 장안사 목산계곡	010-3560-3409
	산이꽃이산악회	7.28.(일)	지리산 백무동계곡	010-9329-3560
감만동	산오름회산악회	7. 7. (일)	지리산 백무동계곡	010-7223-2277
	21세기산악회	7.14.(일)	경남 할양 부전계곡	010-7563-1943
	해월산악회	6.16(일)	거창 기백산	010-3560-3409
	청심산악회	7.28.(일)	무주 월연계곡	010-2736-7553
	용마산악회	7.14.(일)	지리산 대원사 유령계곡	010-2692-1170
	오솔길산악회	7.21.(일)	광양 백운산 동곡계곡	010-8287-1192
문현동	문사산악회	7.14.(일)	지리산 칠성계곡	010-8466-8862
	원뿌리산악회	7.21.(일)	거창 현성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7. 7. (일)	대마도	010-4035-3432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6. 24.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온새미로	용호동	아동생활지도원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750,000원 ~1,800,000원	051-623-8934
주식회사 흥성통운	감만동	트레일러기사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2,200,000원 ~2,800,000원	010-9412-3801
대연5동 새마을금고	대연동	출납창구 사무원(남)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621-9199
호메디오양병원	용호동	병원급식조리사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900,000원	070-4851-7019
케이비유니온 개발(주)	문현동	총무 및 일반사무원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955-5126
(주)명건	용호동	수영강사	3명	19. 6. 24.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612-9464
세무법인태을	대연동	회계사무원	1명	19. 6. 24. ~채용시	연봉 23,000,000원	051-628-0800
(주)백아	대연동	배송 및 배품운전원	2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750,000원 (상여금 200%)	051-625-6251
단체건축사무소	대연동	건축제도사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23-1204
에스레깅귀지 스킨학원	용호동	영어강사	1명	19. 6. 24. ~채용시	월급 1,200,000원	070-4849-2358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모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공기질 정말 나빠졌나? ... 미세먼지 ‘팩트체크’

얼마전 남구청에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다. 3일 과정이었는데, 첫째 날 수업을 들으며 '내일은 절반 정도의 수강생만 출석 하겠구나' 지레짐작했다. 틀물엔, 질소산화물, 매황과 노출의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않는 단어와 개념들이었고 관련 업무를 하는 나부터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첫날 왔던 수강생 대다수가 마지막날까지 출석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높은 관심

을 가지게 된 상황은 언론 등에서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를 두고 '미세먼지'라고 명명하면서부터 눈길을 주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불과 3~4년 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걱정 또한 늘어간다. 정말 그런가. 자료를 한 번 들여다보자.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환경연

통하고 공동 실습관 옥상(대연동 측 정소)에서 측정된 공기 중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pm10의 연평균 농도가 81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8년에는 37.1이 되었다. 2015년 228일 pm2.5 농도는 2018년에는 19.1이고 2019년 4월말까지 평균 농도는 21.4이다. 참고로 'pm10'은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는 입자 지름이 2.5㎍이하 먼지를 말한다. 1㎍는 1m의 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로 2.5㎍

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여름철에 낮아진다. pm2.5는 2015년부터 측정되었다. 장기간의 측정치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pm10의 20년 자료와 4년여 기간의 pm2.5 측정치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남구의 미세먼지 환경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아니라 '없었던'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

손일교

(남구 환경관리팀장)